
카리카스의 역설: 불평등은 감소하고 폭력은 증가하다¹⁾

베로니카 수비아가
벨기에 로바이나가톨릭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카리카스 소재 시몬 볼리바르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수상했다.

핵심어: 폭력, 주관성, 시민권, 비통합, 두려움, 도시의 위협적인 감금체계, 볼리바르혁명, 카리카스

1.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적 선택

도시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시민권이라는 관념을 떠올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엘리자베스 젤린의 정의는 시민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과 시민권을 연구해온 젤린을 인용하자면, “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권력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행을 가리킨다. 시민권은 공통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결정

1) 이 글은 안드레스 베요 가톨릭대학교의 인문·기술과학 발전위원회,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의 연구개발 학장, 열린사회연구소 재단(Foundation Open Society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민중사회의 재구성(Reconfiguraciones del mundo popular)이라는 주제로 2012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할 때 누가 발언권을 갖는가에 관한 투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권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항상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Jelin 1996, 104). 시민권이 관행, 제도, 문화적 재현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국가라는 특권적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개인과 집단의 주관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Jelin 1996, 101). 그렇다면 시민권은 도시라는 맥락에 위치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라는 공유 공간에서 우리는 가깝고 먼 타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포함과 ‘타자’를 규정하는 배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공간적이고 도덕적인 경계를 설정한다.

폭력은 지표상의 숫자를 넘어서 정신적인 상태로 확인되며, 도시에 사는 낮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침투하므로, 자신과 다른 타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주관성을 논의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변화를 관찰해 보면, 수사나 로트커의 예리한 표현대로 ‘두려움의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다(Rotker 2000). 이는 경계의 설정으로 표현되는 적대감의 심화를 의미하며, 공간(공간적인 경계)의 표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이한 타자에 대한 적대감의 심화와 도덕적인 경계의 견고함으로 나타난다.

미셸 라몽의 주장에 따르면, 상징적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구조적 상황에서 특징지어지고 일반화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을 수반한다(Lamont 2002). 상징적 경계는 개개인인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우리’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설정할 때 적용하는 분류 형태이다. 특히 도덕적 경계는 사회적으로 좋은 것, 옳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속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Lamont 2002). 따라서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상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의 일부인데, 절박한 위협에 쫓겨 두려움이 압도하는 순간에는 이 경계가 더욱 강화되고,

때번 더 작은 공간으로 제한되며, 도덕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카라카스라는 도시 공간은 분절되어 있으며, 강력한 도덕적 성격으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도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대와 안전지대로 구성된 하나의 지도로 이해할 수 있다(Remy & Voyé 1981). 영역의 도덕적 차원은 강조되고, 세계는 도시의 익숙한 공간으로 한정된다. 이를테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집이라든가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이라든가 우리 친구와 동료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왕래하는 동질적인 영역이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동질적인 세계를 구성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상이한 타자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공격성을 지닐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우리는 공격적으로 방어할 태세를 갖추게 되고, 이는 도시의 위협적인 감금체계(modelo urbano de confinamiento amenazante)의 토대가 된다. 만일 이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타자(또는 다름)가 부정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무기의 사용이 확산되고, 죽음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 죽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필요한 조치’로 번질되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비인간화와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현실에 사로잡히게 된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 글은 주관적 경험과 일반적 경향 모두를 고려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양한 출처의 통계 자료를 취합하는 작업과,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해왔던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연구 맥락에서 폭력, 타자, 도시, 그리고 이것들이 카라카스 거주자들에게 지니는 의미와 관련해서 카라카스 거주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²⁾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해석적인 열망과 우리를 넘어서는 사건을 말로 의미화하는 작업

2) 구체적으로, 『카라카스의 폭력에 대항하는 청년 발의: 민중부문 남성 청소년들의 경험』(Iniciativas juveniles contra la violencia en Caracas: experiencias de jóvenes varones de sectores populares)을 참조하라. 또한 필자가 마누엘 로렌스, 길다 누네스, 존 수토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보고서(Zubillaga et al. 2012)도 참고하라.

의 필요성은 통계와 설문 자료, 문화기술지 조사 기록, 면담 서술이 지니는 가치에 주목하게 하고, 그 관련성을 살펴보게 한다. 이 모든 '자료'는 오늘날 카라카스의 일상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중첩된 의미의 징후이다. 이 글은 그 총체성을 설명하려 하는 대신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할 해석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불평등의 감소와 폭력의 증가

볼리바르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도시 폭력 연구에서 보자면 모순적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회적 투자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폭력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가장 취약한 집단에서 그 경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³⁾ 모순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수개월 미만의 유아사망률은 감소했고,⁴⁾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동의 숫자 역시 감소했다.⁵⁾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접어들어 동년배나 경찰과 충돌에서 사망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살인사건은 15세에서 24세 사이 남성의 첫 번째 사망 요인이다(전체 살인사건 희생자의 81퍼센트가 남성이다).⁶⁾ 이 집단은 폭력에 의해 사망

3) 국가 소득 분류법을 기준으로 볼 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베네수엘라 빈민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55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감소했다.

4) 아동사망률은 1999년 1천 명당 19명에서 2008년 1천 명당 13.9명으로 감소했다(출처: www.sisov.mpd.gob.ve/indicadores).

5) 1세 미만의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은 1997년과 2006년 10만 명당 72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출처: www.sisov.mpd.gob.ve).

6)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보건부(Ministerio de Poder Popular para la Salud)의 『사망률연감』(Anuario de

할 가능성과 관련해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는데, 폭력으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83%)가 도시의 우범지역 출신으로 확인되었다.⁷⁾

다른 한편으로 민중 부문 아동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주된 희생자인 빈민촌 젊은 남성은 볼리바르혁명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이다. 게다가 이들은 기회의 부재로 인해 마약 경제에 뛰어들기 마련이고, 이는 동년배 집단이나 경찰과 일상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에서 폭력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지만,⁸⁾ 동시에 우루과이와 더불어 가장 불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

간단히 말해서, 베네수엘라에서 폭력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무력에 의해 발생하며, 사회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살인사건의 상연수가 총기 사건인데, 대부분은 부의 축적과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 불평등이 극심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Zaluar 1997). 폭력은 상이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다음 두 차원에서 분쟁의 확산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경제적·도구적 차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마약, 무기 밀매, 조직범죄 등 불법적인 경제 활동이나 자원을 장악하려는 행위자들의 다름으로 나타난다. 또 하부정치(infrapolítica)라고 부를 만한 차원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고, 경찰이나 사법·행정 체계 등 사회적 삶

mortalidad)을 참조함.

7) 범죄피해와 시민안전인식에 관한 전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살인 피해자 가운데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계층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 가운데 56퍼센트는 4분위 계층에, 27퍼센트는 5분위 계층에 속해 있었다(INE 2010).

8) 베네수엘라에서 인구 10만 명 당 살인 사건 사망자는 50명이다. 멕시코는 인구 10만 명 당 24명, 콜롬비아는 31명, 과테말라는 38명, 엘살바도르는 69명으로 조사되었다(Sanjuán 2012; UNODC 2012).

9)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참고해보면 사회경제적 간극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98년 지니계수는 0.48이었던 반면에 2010년 지니계수는 0.38로 나타났다(출처: www.sisov.mpd.gob.ve).

의 근본 요소가 훼손될 때 나타난다(Wieviorka 2004).

이토록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게 된 데는 베네수엘라의 현대사가 복잡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그런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밝히는 데 있지 않다. 20세기 중반 베네수엘라의 급속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시민권의 침해, 1980년대 삶의 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던 상황, 1990년대 국가의 쇠퇴와 라틴아메리카 전반으로 확산된 불법 밀수에서 폭력의 근원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폭력이 갑작스럽게 양산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볼리바르혁명이 전개됨에 따라 정치적 긴장이 절정으로 치달았고, 2002년 쿠데타, 2004년 석유 파업, 친정부와 반정부 세력의 가두 충돌 등 적나라한 대립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경찰과 사법체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했고, 제도 전반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분쟁으로 인해 무기소지는 확대됐고, 팽팽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무기와 군수품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마비되었고, 치안 기관(경찰과 군대)은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납치, 절도, 마약, 무기와 군수품 밀매 등 조직범죄와 연루되면서 치명적인 권력 남용을 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민중 부문의 젊은 남성이며, 이 모든 과정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폭력을 초래한 명백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민중 부문 젊은 남성은 지속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불법 마약 경제에 더욱 쉽게 빠져들었다. 그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전문적인 자질'의 일부가 되고, 존경의 근원이 된다. 그 결과, 죽고 죽일 준비를 갖춘 수많은 젊은이의 무리가 생겨나게 된다. 여러 기관과 중간 계층 및 빈민층 민중은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신속한 해결책으로 범죄자 처벌을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더 많은 죽음을 초래했다. 이 모든 요인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치명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는, 대다수 희생자가 속한 민중 부문을 짓누르고 있는 극도의 두려움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는 바가 거의 없다. 또한 이런 자료는 희생자 가족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대변하지도 못한다. 폭력으로 청년들이 죽어갈 때, 그 곁을 지키는 조부모,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것이다.

3. 두려움의 시민권에서 비통합의 (반)시민권으로?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회 중간계층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으며, 반복적인 무장 충돌이나 또 다른 위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민중의 증언을 수집했다(Zubillaga & Cisneros 2001, 161-176). 우리는 이들의 경험이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비통합이 축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민중 부문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는 무장충돌이 생길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사용하는 어휘도 “제일 먼저 쓰러진 이들”과 같이 전쟁 희생자의 것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한 명은 빈민촌의 가장 외곽에 거주했는데, 그녀는 매일같이 총격전 현장에 있었고, 자녀들까지 위협에 내몰렸다(Zubillaga et al. 2012).

여기에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조카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 아이는 여자에였는데도 불구하고 살해당했어요, 우리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쓰러진 건 우리 가족이었어요, 내 동생은 훨씬 안쪽에 살고 있었지만 총에 맞았지요, 우리 가족은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은 모조리 여기로 날아왔습니다(Zubillaga et al. 2012).

무장충돌에 휘말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통근과 일상적인 업무에 타격을 입었다는 사람들도 종종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달리고, 의심하고, 숨어야 한다.

외출이라도 하면, 먼저 전화를 해서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해야 했지요, 빨리 들어갈 수 있는지도요,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통금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늘 그랬지요(Zubillaga et al. 2012).

무장충돌과 그로 인한 죽음이 일상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광견병에 걸리거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파괴적이고 마비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여성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많은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많은 죽음에 시달리고 나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 이제 나도 포기할래!' 실령 누가 죽는다고 해도 말이죠. 죽은 사람들을 떠올릴 때면 나는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농담을 좋아했는지, 유쾌하게 행동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Zubillaga et al. 2012).

정의의 부재와 누적된 원망은 비통함이 자아내는 고통과 맞물린다.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는 복수를 갈망하는 원인으로 변질된다(Caldeira 2000). 고통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어서, 죽음은 또 다른 죽음에 호소한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너무나 강렬합니다. 나는 소년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백 명 남짓 됐어요, 제일 먼저 죽은 아이는 그녀의 오빠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떠올리게 되지요(Zubillaga et al. 2012).

일상적 무장충돌이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게 되면, ‘순환적 고통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쇄적인 죽음으로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반시민권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반시민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의할 기관도 없고, 정의를 실현해주거나 누군가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들을 돌보고 치유해주거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국가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로트커는 다음과 같은 상태를 가리켜 두려움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전무후무한 시민의 조건, 즉 잠재적인 희생자라는 조건은 새로운 형태의 주관성을 발전시킨다. (...) 이러한 주관성의 특징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수도에 감도는 불안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도시민의 감정과 무감각을 의미하며 (...) 권력, 이웃, 공간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행동을 포함한다(Rotker 2000, 14-15).

하지만 카라카스의 수많은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감

으로써 생겨나는 순환적인 고통의 상태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 상태는 상실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맞닿아 있고, 납치당한 친인척이나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증이 야기하는 비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반복되는 고통의 상태는 궁극적으로 반시민권의 상태와 동일하다. 한나 아렌트를 연상시키는 젤린(Jelin 1996)과 로트커(Rotker 2000)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권이란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권리와 책임의 공동체에 속할 권리이다. 또한 시민의 윤리는 비폭력, 다시 말해 아무도 고통 받거나 상처 입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민중의 삶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연속적인 죽음은 극단적인 방치, 예컨대 그 어떤 보호 장치나 사회 정의도 불가능한 상황을 반영한다. 무의미한 죽음은 사망한 사람들이 사실상 폐기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며, 이는 시민권이 무용지물이라는, 아니 부정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4. 도시에서 위협적인 감금의 확산¹⁰⁾

폭력적인 범죄가 극도로 치달던 1990년대에 카라카스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새로운 지형도가 형성되었다(Rodgers 2006). 주민의 불안이 심각해지자 국가와 지방의 통치 기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동대를 증원했다(Antillano 2006). 카라카스는 중무장한 경찰이 배치된 수많은 검문소의 도시로 변모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범죄 소탕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도리어 위협이 상존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Sanjuán 2008).

10) 이 장은 내용은 Zubillaga(2012)에 토대를 두고 있다.

빈민촌에서 경찰기동대는 무턱대고 난입하기 일쑤였고, 이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이고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으며, 무장한 민간인과 충돌을 야기했다. 볼리바르혁명의 시기가 도래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이 등장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경찰의 작전은 극단으로 치달아 ‘불량배의 군사폭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규모 경찰 병력이 새벽녘 빈민촌에 투입되었고, 이로써 빈민촌은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카라카스의 어느 주민은 “빈민촌은 모두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이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현재 그들이 하는 일은 일종의 전쟁이다. (...) 어떻게든 대응해야 하는 전쟁 상태이다”라고 말했다(Chacón & Trujillo 2009).

심각한 폭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책도 강화되었다. 여기저기서 흉흉한 이야기가 들렸고, 이보다 더 경악할 만한 새로운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1990년대 우리는 중간 계층을 노린 전형적인 습격 사건에 대한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고(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무장한 범죄자들의 차량 기습 절도이다)(Zubillaga & Cisneros 2001), 이런 사례는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요즘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는 무장괴한들이 영화관에 난입하여 전체 관객의 금품을 절도하는 행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전 주민을 공격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납치도 빈번하게 자행되며, 이는 카라카스 주민의 일상적인 삶, 예를 들어 직장, 학교, 야간 외출 등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자아낸다.¹¹⁾

두려움이 극심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 이런 사건의 실체를 뒷받침해

11) 『피해경험과 시민안전 인식에 관한 국가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은 총 26,873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7,017건이 카라카스에서 발생했다(INE 2010). 이는 인구 10만 명당 20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사건발생기간이 불과 몇 분에 그치며 좀처럼 신고 접수되지 않고 일반에 알려지지도 않는 ‘고속 납치’부터 사건발생기간이 수일에서 수개월에 이르고 보다 심각한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에 따라(Zubillaga & Cisneros 2001), 도시의 지형도는 변화되었고, 주민들은 앞다투어 예전보다 강화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1990년대 주택에는 방범창과 담장이 세워졌고, 도시에는 사설 경비원이 배치되었다. 주민 사이의 동질적인 공간은 축소되고, 그 대신 이질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설치된 것이다(Remy & Voyé 1981). 테레사 칼테이라가 말하듯이 카라카스는 산 파블로나 멕시코시티처럼 방범창과 담장으로 격리된 도시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는 거리두기와 경계설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이고 물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Remy & Voyé 1981).

21세기가 시작되고, 공포가 증폭되면서¹²⁾ 감금체계가 작동하게 된다. 감금체계는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자체가 위협이 된다. 이와 함께 이미 높아진 담장에는 전류가 흐르는 예리한 가시철조망이 설치된다.

이는 위협적인 감금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자 도시의 격리체계가 재등장했다는 증거이다. 이 적대적인 건축물과 도시 주민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축적된 두려움이 거주지 담장의 변화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담장을 세우더니, 1990년대 중반에는 담장이 더 높아지고, 2000년대 중반에는(주거지 절도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목격자의 증언이 속출함에 따라) 침입자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이미 높아진 담장에 전기철조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는 그 어떤 시도도 보호막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가시철조망으로 경계를 표시해, 이를 침범하면 공격하겠다는 위협적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12) 대립이 극도에 달한 시기에는 무장 강탈로 희생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과 침입으로 희생당하게 된다(Salas 2004, 91-109; Trinkunas 2004).

이렇게 철조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기이며, 적대감과 공격 위협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축물과 미학의 확장된 형태이다. 사실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면 도처에서 위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담장의 측면이나 상부에는 날카로운 전기철조망이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위험, 이 시설물에는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신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걸려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위협은 도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적대감으로 가득 찬 시대에는 상류층의 불신을 이용한 상품도 성행한다. 이 모든 것은 무장충돌이 극도로 치달았던 시기의 콜롬비아를 떠올리게 한다. 급속한 도시화로 생겨난 거리와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상업중심지에 경호원이 배치되기 시작하고, 자동차는 방탄 장비를 갖추고, 무장 경호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다.

도시가 점차 움츠러들면서 구역(barrio) 간 격리가 심화된다.¹³⁾ 그리고 무장충돌이 일상을 파고들면서 구역 내부도 분열되며, 이는 공동체적 사회성의 약화와 공간적·도덕적 경계의 강화로 이어진다. 구역은, 안면이 없는 이웃이 사는 동네로 분열되는 것이다. 꾸불꾸불한 골목길은 철창으로 폐쇄되고, 길은 끊기며, 인접한 구역은 낯선 곳으로 변해버린다.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유리병이 꽂혀있다. 해당 동네의 무장 청년이 나타나 인접한 동네의 무장 청년과 대치한다. 자기 동네의 보안을 책임지는 이 청년이 적을 뒤쫓을 때는 인접한 동네의 이웃에 대해서 일말의 배려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식적인 보호망이 해체되고 도시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공동체적

13) 이어지는 내용은 필자가 카라카스의 차카오(Chacao), 수크레(Sucre), 리베르타도르(Libertador) 자치구에 위치한 일부 빈민촌들에서 수행한 문화기술지 조사를 토대로 한다.

사회성이 구역에 들어설 자리는 없다. 친밀한 관계는 제한되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며, 도덕적 경계는 다시 한 번 견고해진다. 청년들은 자기 동네에만 애착을 갖고, 동네의 이웃과 가족에게만 인사할 뿐, 인접 동네의 주민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동네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받아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주민들은 청년들이 이웃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규율을 준수하고, 설령 소란을 피우더라도 자기 동네 외부에서 그런다면 관대하게 넘어간다. 주민들에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바깥은 무관심해도 되는 곳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공동체적 준중이라는 덕목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불과하다.

도시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대, 이런 상황이 지니는 파급력은 명확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이미 감금된 상태에 있는 도시민의 도덕적 경계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며, 자기 방어의 필요성에서 타자를 배제하고, 심지어 타자의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주디스 버틀러가 지적하듯, 이와 같은 궁극적인 상실에는 아무런 고통도 따르지 않는다(Butler 2009). 왜냐하면 두려움이 만연한 상황에서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미 인간이라는 조건을 상실한 존재이며, 단지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저 하찮은 생명에 불과할 뿐이며, 설령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측은하게 여길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요새화되고 고립된 동네로 구성된 도시의 격리 체계는 단절된 도시를 만들어 내고, 이런 도시는 불안감을 자아내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배제에 토대를 둔다.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감금체계 또한 타인을 약탈자로 간주하여 반감을 표출하거나 공격적인 방어막을 칠 때 만들어진다.

5. 끝내는 말

베네수엘라 사회의 독특한 경험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사회를 잠식할 수 있는 어두움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전통적으로 배제되어온 다수를 최대한 포용하려는 시도와 바람에서 분출되는 빛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포용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폭력의 완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그 반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권의 확보는 하나의 과정이자 상충하는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포용이나 호혜적인 인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인간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혀 타인을 바라보거나 재단하는 대신 대화에 근거해서, 나아가서는 존엄과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연성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사회 협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협적인 담장, 무기, 방치, 그리고 차이를 본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공존은 불가능하다. 국가가 효과적으로 개인과 가정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자기방어이다. 결국 권력, 돈, 무기를 소유한 사람만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등한시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는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한다.

라틴아메리카가 평등, 민주주의,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중,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불평등에 대항하는 연대, 투쟁, 요구,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성취해야 한다. 나아가서 대립을 극복하고, 무기를 버리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강화와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너 나 할 것 없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 즉 우리의 취약성을 깨닫고 타인의 고통과 상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음

으로 내몰았던 무기를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다는 깨달음의 기초가 될 것이며, 생명과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_ 강정원 옮김

원제와 출처

Verónica Zubillaga..

"Menos desigualdad, más violencia: la paradoja de Caracas." *Nueva Sociedad*.

No. 243. enero-febrero de 2013. pp.104-118.

참고문헌

- Antillano, Andrés. 2006. “La Policía en Venezuela: una breve descripción”, Soraya El Achkar (ed.), *Reforma policial. Una mirada desde afuera y desde adentro, Comisión Nacional para la Reforma Policial*, Caracas : Comisión Nacional para la Reforma Policial.
- Butler, Judith. 2009. *Vida precaria: el poder del duelo y la violencia*. Buenos Aires: Paidós.
- Caldeira, Teresa. 2000. *Ciudad de muros*. Barcelona: Gedisa.
- Chacon, Andrea & Andrés Trujillo, 2009. “La construcción social y personal de la identidad del policía en barrios y urbanizaciones de Baruta”, 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UCAB), Escuela de Ciencias Sociales, mimeo.
-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0. *Encuesta Nacional de Victimización y Percepción de Seguridad Ciudadana 2009*. Caracas: INE.
- Jelin, Elizabeth. 1996. “Citizenship Revisited.” E. Jelin & Eric Herschberg (eds.). *Constructing Democracy: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Society in Latina America*. Boulder: Westview.
- Lamont, Michèle. 2002. “Symbolic Boundaries and Status”, Lyn Spillman (ed.), *Cultural Sociology*. Malden: Blackwell.
- Ministerio de Poder Popular para la Salud. *Anuario de mortalidad*, Caracas, ediciones 1997-2008.
- Remy, Jean & Liliane Voyé. 1981. *Ville, ordre et violence. Espace et liberté*. París: PUF.
- Rodgers, Dennis. 2006. “Slum Wars of The 21st Century: The New Geography of Conflict in Central America”, Working Paper No 10, Crisis States Research Centre,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 Rotker, Susana. 2000. *Ciudadanas del miedo*. Caracas: Nueva Sociedad.
- Salas, Yolanda. 2004. “La revolución bolivariana y la sociedad civil: La construcción de subjetividades nacionales en situación de conflicto”,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Vol. 10. No 2, pp. 91-109.
- Sanjuán, Ana María. 2008. “La Revolución Bolivariana en riesgo, la democratización social en cuestión. La violencia social y la criminalidad en Venezuela entre 1998-2008”,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Vol. 14 No 3, pp. 145-173.
- Sanjuán, Ana María. 2012. “Seguridad ciudadana en Venezuela”, ponencia presentada en el Woodrow Wilson Center, Washington, DC, 30 de mayo de 2012

- Trinkunas, Harold. 2004. "Venezuela: The Remilitarization of Politics", Kees Koonings y Kirk Kruijt (eds.), *Armed Actors, Organised Violence and State Failure in Latin America*, London: Zed Books.
- UNODC(Oficina de las Naciones Unidas contra la Droga y el Delito). 2012. "Intentional Homicide, Count and Rate per 100.000 Population (1995-2011)." 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Homicide_statistics2012.xls, fecha de consulta: 20/9/2012.
- Wieviorka, Michel. 2004. *La violence*. París: Balland.
- Zaluar, Alba. 1997. "Violence Related to Illegal Drugs, 'Easy Money' and Justice in Brazil: 1980-1995", Discussion Paper No 35,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MOST), Unesco.
- Zubillaga, Verónica. 2012. "Violencia, subjetividad y alteridad en la Caracas del siglo XXI", Roberto Briceño-León, Alberto Camardiel y Olga Ávila (eds.), *Violencia e institucionalidad. Informe del Observatorio Venezolano de Violencia 2012*, Caracas: Alfa.
- Zubillaga, Verónica, Manuel Llorens, Gilda Núñez & John Souto. 2012. "Sistematización acuerdos de convivencia entre comunidades y jóvenes de bandas armadas: claves para aprender y difundir", proyecto de investigación en curso, Parque Social Manuel Aguirre, 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Universidad Simón Bolívar y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 Zubillaga, Verónica & Angel Cisneros, 2001. "El temor en Caracas: relatos en barrios y urbanizaciones",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vol. 63 No 1, pp. 161-176.